월동기의 봉군관리

경기도 평택시 박영준

1.개요

월동 사양도 10월초를 기준으로 다 끝나고 앞으로 남은 일은 진드기 구제와 월동준비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지고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봉군들은 내년을 대비하여 화분수집에 여념이 없는 때입니다. 꿀벌의 세계는 자기보호본능이 매우 강한 집단이므로 조금이라도 여건이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종족을 버리는 습관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칫하면 봉군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진드기 구제와 월동지역군의 정비 같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막바지 봉군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도 수확기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2. 관리요령

이 달의 관리요령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10월초까지는 월동사양이 끝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양이 끝나지 않은 봉장에서는 서둘러 사양을 마친 다음에는 안정(도봉)이 가장 필요합니다.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빈번한 내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도봉이 한번이라도 발생되면 좀체로 해소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그늘에 배치한 봉군은 별 문제 될게 없으나 양지쪽에 배치한 봉군은 차광막같은 것을 이용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사양이 끝난 다음에도 벌들의 빈번한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준 것과 그렇지 않은 봉군을 비교해 보면 약 1매에서 2매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먹이소모도 감소하게 되므로 꼭 그늘에 배치하거나 햇볕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육아작업을 하지 않아도 화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화분이 잘 들어오는 곳에 봉군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화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지난호에서 강조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화분이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많은 봉군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분산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진드기 구제 요령

10월 초 중순경(10.10 - 10.20)이 되면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까지도 봉충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일부 봉군은 손바닥만큼 봉충이 남아있는 것도 있으나 이 때가 되면 진드기 구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이 됩니다.

진드기 구제하는 시기가 너무 늦게되면 약해를 받기도 하거니와 온도가 내려가면 진드기 구제가 잘 되지 않으므로 이 시기를 택하여 투약을 해야 합니다.

단 저기압상태의 흐린 날은 피하고 맑은 날을 골라서 하면 된다. 봉충이 거의 없는 시기이므로 한번의 투약으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드기 구제가 덜 되었다고 생각되면 내년 봄 첫 내검 시 한번 더 투약을 하면 됩니다.

필자는 봄 · 가을 두 번으로서 진드기 걱정 없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제선택인데 어느 약을 쓰든지 한가지 약만 투약하지 말고 약을 바꾸어가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성이 생기면 효과적인 진드기의 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드기약을 넣은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즉시 약

제를 제거해 주어야 다음번에 효과적인 구제가 됩니다.

4. 축소요령

중부지방은 10월 20일 경 남부지방은 10월 말일 경 축소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쯤이면 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완전한 준비가 되 있는 관계로 몸집이 매우 적습니다.

어느 정도 밀집을 시켜야 안전하게 월동을 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밀집을 시켜도 겨울에 약간만 따뜻한 날이면 활동을 많이 해서 월동성적이 좋지 않고 밀집을 약하게 시켜도 온도가 내려가면 낙봉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축소를 하는 요령은 소비를 기준으로 소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밀집을 시켜 주되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먹이소비의 배치 요령은 먹이가 가장 많은 것(봉개된 소비) 두 장을 양 가장자리에 각각 1매씩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많은 소비를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양 가장자리에 먹이가 많은 소비를 넣어 주는 이유는 월동 중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소상 내에서의 이동이 여의치 않아 아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 한가지 해야 할 일은 소광대 위에 둥그런 나무토막을 올려주는 일입니다. 직경 2cm 정도 되는 나무토막을 월동매수 만큼의 길이로 만들어서 올려주게 되면 월동 중 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상 바닥은 추워서 벌의 이동이 안되지만 소상 위쪽으로는 이동이 가능하여 먹이를 운반하기 때문에 아사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5. 월동포장요령

월동포장을 하는 방법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좀 두껍게 포장을 하고 남부지방에서는 좀 얇게 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월동중 활동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온에 의한 온도변화가 적어야 합니다. 일손이 풍부하다면 볏짚을 이용하여 포장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요즘에는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보온덮개를 이용한 포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온덮개는 보온효과는 좋으나 공기유통이 잘 되지 않아 상내에 습기가 염려됩니다.

소상내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른 봄 설사병과 석고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월동포장 시 유의해야 합니다.

포장을 하는 방법 중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은가는 봉우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여 포장을 하되 두가 방법 모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그늘 같은 곳에서 차단을 시켜 포장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듯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볏짚을 이용하여 월동(개방식)을 했으나 지금은 일손이 부족하여 보온덮개를 이용(차단식)하여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한이 계속될 시 상내에 습기가 많이 차게 됩니다. 생각다 못한 끝에 1달에 2-3번씩(1-2시간마다) 환기를 시켜봤는 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단식으로 월동을 했을 경우 환기를 시켜주게 되면 온도상승시 소동하는 것을 적게하여 조춘에 질병발생이 적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탈분시에도 탈분을 적게 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월동이 되었나의 여부는 탈분을 적게하고 벌의 몸이 크가 적은가에 달려 있는 듯 합니다.

월동을 잘한 봉군은 몸이 작습니다. 적정한 환경에서 겨울을 났기 때문에 먹이소모도 적고 체력소모가 적은 관계로 늦은봄까지 오래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번호까지 말씀드린 가을철 관리와 월동기 관리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봉우 여러분들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조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를 해 보니 이상적인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축방역 중앙정부 권한 강화

(농림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범국가 차원의 방역이 필요한 제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 · 도에 역학조사반을 지체없이 설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3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역학조사, 가축방역관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강화 등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예방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